

조성현 HL만도 부회장, 발명의 날 '은탑산업훈장' 수훈

등록 2026.05.20 09:04:56



[서울=뉴시스] 지난 19일 열린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조성현 HL만도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(사진제공=HL그룹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신항섭 기자 = HL그룹 계열 자동차 부품사 HL만도(주)의 조성현 부회장이 지난 19일 열린 '제61회 발명의 날'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.

조 부회장은 1986년 입사 이래 약 40년간 제동·조향·현가 등 자동차 핵심 모듈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다. 전자 구동 제동장치(EMB)와 전자식 조향 시스템(SbW) 개발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.

HL만도와 HL클레무브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특허·실용신안 총 1만여 건을 확보했으며, 미국·중국 등 주요 시장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.

HL만도는 현대자동차·기아를 비롯해 GM·포드·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다.

은탑산업훈장은 산업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, 금탑·은탑·동탑·철탑·석탑 5등급 가운데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한다.

발명의 날은 축우기 공식 사용일 등 우리 민족의 과학적 발명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, 매년 5월19일 기념식을 개최한다.

이번 기념식에서는 조 부회장 외에도 HL만도와 HL클레무브 직원 3명이 함께 수상했다.

HL만도의 배재훈 팀장은 SbW 양산 개발과 와이어 구동 시스템(By-Wire) 상용화 관련 법규 제정을 주도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.

한재현 HL클레무브 팀장은 자율주행용 고성능 코너 레이더 핵심 기술 개발 성과로 국무총리표창에 선정됐다.

장재훈 HL만도 책임연구원은 전동화 브레이크 분야 특허 창출 및 기술 내재화 기여를 인정받아 지식재산처장표창을 수상했다.

조성현 부회장은 "이번 수상은 HL인 모두가 함께 이뤄낸 도전의 산물"이라며 "앞으로도 미래차와 로봇 연구에 끊임없이 매진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